

# “중형 세단의 기준이 바뀐다”… 더 넓고 길어진 3세대 K5



4년 5개월 만에 모델 풀체인지 적용  
국내 중형 세단 중 가장 긴 휠베이스  
'샤크스킨' 모티브 역동적 디자인 구현  
후면·전면부 연결성 강조… 안정감 ↑



기아차 신형 K5 외장.

기아자동차가 3세대 K5로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의 기준을 새롭게 정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중형 세단 중 가장 긴 휠베이스를 적용해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기아차가 지난 2015년 7월 2세대 K5를 선보인 후 4년 5개월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인 3세대 K5의 출시를 한 달여 앞두고 외장 디자인을 12일 공개했다.

기아차는 3세대 K5에 ‘역동성의 진화’를 디자인 콘셉트로 과감한 디자인 요소를 적극 적용해 강렬한 인상과 존재감을 구현했다.

3세대 K5의 외관은 ▲혁신적인 신규 디자인 요소 대거 적용으로 감탄을 자

아내는 전면부 ▲패스트백 스타일과 기존 디자인의 파격적인 진화로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측면부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후면부 ▲동급 최대 수준의 휠베이스, 늘어난 전장, 낮아진 전고로 한층 스포티해진 옆모습 등을 통해 더욱 과감하고 더욱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 특징이다.

차 크기는 길이 4905mm, 너비 1860mm, 높이 1445mm, 휠베이스 2850mm 등이다. 길이와 너비는 각각 50mm와 25mm씩 연장하고, 높이는 20mm 낮췄다. 휠베이스는 국내 판매 중인 중형 세단 중 최대 수준이다.

3세대 K5의 전면부 디자인은 강렬함 그 자체로 혁신적인 신규 디자인 요소가 대거 적용됐다.

지금까지 기아차 디자인의 상징이었던 ‘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은 헤드램프와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고 모든 조형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진화했다. 기아차의 디자인 정체성을 그릴에서 전면부 전체로 확장시켰다.

K5의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은 상어 껍질처럼 거칠고 날카로운 외관을 갖췄지만 부드러운 촉감을 갖춘 직물인 ‘샤크스킨’을 모티브로 역동적이면서도 한층 정교해졌다.

3세대 K5의 측면부 디자인은 확대된 제원, 패스트백 스타일, 기존 디자인의 파격적인 진화 등으로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후면부 디자인은 전면부와의 연결성을 강조했으며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통해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갖췄다. 리어콤비램프는 좌우가 리어윙 형상으로 연결돼 넓고 안정적인 느낌과 함께 스포티한 이미지를 선사하며 램프가 커질 경우 K5만의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욱 강조한다.

기아차는 3세대 K5 외장 디자인 공개와 동시에 카카오맵의 3D 스카이뷰에서 구현된 K5를 찾고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고객은 카카오맵 어플에 접속한 뒤 우측 하단 레이어 버튼 클릭 후 ‘3D 스카이뷰’를 선택하고 지도에 등장하는 3세대 K5를 찾으면 된다.

K5는 기아차 지점 전국 40개소의 옥상 및 주변에서 등장하며 양재동 본사 등 기아차의 주요 거점 4곳과 국내 유명 해변 6곳에는 초대형 3세대 K5가 등장해 이벤트의 재미와 즐거움을 높인다.

기아차는 자동차업계 최초로 3D 맵 상에서 외장을 동시 공개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3세대 K5를 궁금해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K5를 더욱 자세하고 신선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의 3세대 K5가 국내서 판매 돌풍을 일으킬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세대 K5는 2015년 출시 첫해에 5만8619대가 판매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6년 4만 4637대, 2017년 3만8184대, 지난해 4만 8503대에 그쳤다. 지난 10월에 K5는 2893대가 판매됐다. 올해 누적 판매량은 2만76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줄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자율주행의 꽃’ 고속도서 트럭 군집운행

### 현대車 7.7km구간서 40t급 주행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에서 대형트럭 군집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경기도 여주 스마트하이웨이(여주 시험도로) 7.7km 구간에서 트레일러가 연결된 최대중량 40t급 대형트럭 엑시언트 2대로 군집 자율주행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2018년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 주관 정부과제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 선도와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현대차, 한국도로공사, 국민대학교 등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했다.

대형트럭 군집주행은 여러 대의 화물차가 줄지어 함께 이동하는 자율주행 운송기술이다. 미래 물류산업 혁신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기술이다.

뒤 따르는 트럭에는 공기 저항이 최소화돼 연비를 높이고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고도화된 군집주행 기술과 한단계 끌어올린 대형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켜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성공한 시연

다. 운전자는 액셀레이터 및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 놓을 필요가 없어 운전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또 차선유지 자동제어 기술도 적용, 추종 트럭의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것도 가능해져 운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군집 자율주행 중인 트럭과 트럭 사이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추종 트럭은 일반 차량과 최소 25m 간격을 두고 주행하게 된다. 선두 트럭이 급제동, 급정차를 하더라도 군집 자율주행으로 따르던 트럭도 동시에 급제동을 가하는 기술도 성공적으로 구현해냈다.

현대차는 군집차량 차간거리 축소, 도로교통 인프라 정보 활용 등 군집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현대글로비스와 협업해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40km 구간에서 실제 해외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을 탑재한 대형트럭으로 자율주행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당시 구현 기술은 예외적인 경우에

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자율주행 3단계(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수준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V2X 통신을 접목시킨 상용차 커넥티드 카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군집 자율주행으로 주행하는 대형트럭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군집주행 기술의 발전은 곧 물류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 지스타에 뛴다

###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출시 38인치 대화면 곡면·175Hz 지원

LG전자가 오는 14일 열리는 ‘지스타 2019’에서 대화면·고성능의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지스타에서 게이밍 모니터인 LG 울트라기어(모델명: 38GL950G)를 공개,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를 뽐낸다. 지스타는 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국제게임전시회로 국내외 다수의 IT·게임 기업이 참여하고 2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다.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화면비 21:9와 초고해상도(WQHD +: 3840×1600)를 지원하는 38인치 대화면 곡면 ‘나노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보다 선명한 게임 화면과 높은 게임 몰입도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최대 175헤르츠(Hz) 고



모델들이 대화면·고성능 겸비한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모델명: 38GL950G)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LG전자

주사율을 지원한다. 1초에 최대 175장의 화면을 구현해 빠른 움직임의 게임도 부드럽게 묘사한다.

응답속도는 1ms로 각 화소의 색상 및 명암변화가 빠르고 정확해 사용자

들이 보다 부드러운 화면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

터는 엔비디아의 지싱크 모듈을 장착했다. 높은 성능의 지싱크 기능으로 고사양 게임을 즐길 때 모니터에 발생하는 화면 벼벽거림을 없애줘 선명한 화면을 제공한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연내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출하가는 219만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홈페이지 상담 더 정교하고 빠르게… 챗봇 서비스 도입

직관적으로 제작, 모든 연령대 고려

LG전자가 홈페이지에 챗봇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챗봇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채팅 상담 서비스다. 상담할 때마다 정보를 축적해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정교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LG전자가 도입한 챗봇은 직관적으로 제작해 모든 연령대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검색 ▲제품 추천 ▲베스트샵 찾기 ▲매장상담 신청 ▲이벤트 안내 ▲고객서비스만 버튼을 눌러, 나머지 문의는 채팅창에 입력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간단한 조치 방법을 확인하거나 서비스 엔지니어 출장예약, 제품 설치 및 철거 예약도 가능하다.

챗봇은 LG전자 홈페이지 우측 하단 챗봇상담 아이콘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LG전자 채널로도 기능을 제공한다.

/김재웅 기자 juk@